

21 세기 패션에 표현된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징에 관한 고찰

The Character of Ethnic Make up by Observation of 21's Century Fashion Trend

김미정 · 김미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동명 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Kim, Mi Jung · Kim, Mi Hyu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 Dept. of Beauty Design,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has sought to explore how fashion emerges as a comprehensive tool of dress for increasing its brand appeal and express one's artistic sense and fashion by using everything from make-up to hair to trappings. Therefore, when it comes to fashion trends reflected in collections, the study i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make-up as one of the elements of total fashion and to help create diverse ideas in expressing creative and free make-up that can help perfect fashion concept in harmony with all the other elements. The study has pondered upon collection, trends and fashion make-up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has gathered image data via the Internet. It also has conducted analysis of Ethnic style reconstructed combining past and the future, East and the West, and futurism style using asymmetrical forms without no defined patterns and hi-tech textures, which emerges as a result of post-modernis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thnic fashion that pursues strange and exotic beauty is characterized by its simple and idyllic images of traditional costume in Asia or primitive clothes in Africa. Make-up represent images of matt and pale skin, tanned yellow, glossy and thickly powered squeaky white skin. Point make-up highlighted eye lines, red chick, small and voluptuous red lips. Hair and accessory seeks diversity combining various ethnic styles together such as oriental, Indian, Islam and Africa. In addition, future-oriented fashion of the 21st century, twists in texture, various kinds of materials and changes in technique help give impressions of freedom and bizarreness.

Key Words : Ethnic, Oriental, Fashion Style, Make Up

I. 서론

인간의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복식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이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 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피부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성으로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정희(2005)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양상은 이전의 뷰티메이크업이 아닌 매 시즌마다 가장 실험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의 흐름이 토탈 패션지향으로 부각됨에 따라 메이크업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더욱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패션의 조화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의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디자이너의 의복형태, 직물, 문양, 색상, 장신구 등을 중심으로 의상 작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패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총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 초반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불안과 혼란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동시에 교차되는 시기로

* Corresponding author: Kim, mi-hyun(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Tel: 051) 620-3754
E-mail: grimass@naver.com

미래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은 복고적인 경향과 동시에 신비한 동양적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에스닉(Ethnic)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첨단소재를 이용한 퓨처리즘(Futurism)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의 에스닉의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메이크업이 토털 패션의 한 요소로서의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앞으로 전개 될 미래의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한 경향을 예측하여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메이크업 기법발달과 표현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현대는 과학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수용, 응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78년 12월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전환점으로 중국은 서방세계에 더욱 그들의 복식과 문화를 알리게 되었고, 서구 패션계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새로운 동양풍 문화바람이 일어났다. 19세기 중엽 서구 문화 전반에 일본 취미(Japanism)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Kimono)가 서구패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본복식의 영향이 독특한 미의식으로 패션에 확대되어 일본풍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복식과 중국 복식은 20세기 복식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교회(2003)에 따르면 패션에서의 에스닉은 그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민속의상이나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의상 등으로 이러한 에스닉 이미지에는 오리엔탈리즘, 에조틱, 포클로어의 패션이 포함된다.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아시아의 민족적 의상을 가리키는 패션용어로서 1984년에 인도풍의 민족의상으로, 1988년에는 몽고풍으로 유행하였다. 1990년에는 영화 인도차이나의 상연, 1997년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중국풍 패션이 유행하였다. 정삼호, 김영숙(1996)에 따르면 에조틱 패션은 '이국풍', '이국정서'라는 의미로서, 낯설고 색다른 멋을 추구하는 감성 이미지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엽에 크게 유행하였

으며, 1994년에는 클로에(Chloe)에 의해 다시 유행하였다. 포클로어 패션은 유럽 지방의 농민 의상, 인디언 의상 등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구 디자이너들은 서구의 디자인 확일성에 대한 한계와 싫증으로 신비롭고 이국적인 경향의 동양적인 정신과 미를 선호하게 되었다. 최근의 오리엔탈리즘 경향 패션은 중국과 일본의 전통복식이 재해석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또한 1988년 올림픽과 80년대 이후의 경제급성장으로 한국 전통복식을 국제적인 무대에 알리는 기회가 생겼다. 1993년 이후 홍미화, 진 태옥, 이신우 등의 디자이너들의 꾸준한 프레타포르테의 진출로 한국적인 복식미를 세계에 알리고 서구 패션계의 새로운 자극과 관심이 되었다. 현대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무수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고 모든 고정관념의 경계를 해체, 거부하며 역사성과 토속 성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오리엔탈리즘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1999년에는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장 폴 고티에르(Jean Paul Gaultier)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旗袍 중)와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가 그대로 재현, 응용되어 동양적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하거나 역사적인 요소를 차용하여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양면적 가치를 표현하는 복고성의 모방을 볼 수 있다. 이들 디자이너들은 공통적으로 동양풍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과 헤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총체적 패션으로 선보이고 있다. 새틴 소재, 용과 꽃등의 자수나 프린트, 차이니즈 칼라, 옆이 터진 타이트한 스커트 등 중국풍 모티브들은 서양 복식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양적인 모티브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에스닉풍의 패션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로 존 갈리아노를 들 수 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새로운 에스닉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나무 잎 프린트와 차이니즈 칼라(collar)를 레드와 네이비 컬러로 매치한 프라다(Prada),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등이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이러한 에스닉 이미지의 패션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동양적인 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메이크업에서 동양풍이라 하면, 중국의 경극에서 보인 메이크업으로 밝은 핑크색의 피부표현에 검은 눈썹, 붉은 입술, 붉은 아이새도와 블러셔로 완성되는 중국풍 메이크업과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흰 얼굴에 작고 붉은 입술의 일본풍 메이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경향 중 에스닉 패션을 대상으로 이들 패션경향에 나타난 토털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 색조화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패션과 메이크업, 패션컬렉션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였고, 패션 이미지는 인터넷사이트 스타일닷컴 을 활용하였으며 메이크업을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해 얼굴 위주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중국풍의 메이크업 경향은 경극의 무대용 페인팅 화장을 이용하였다. 특히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작고 요염한 입술, 검은 눈썹으로 중국적 동양미 효과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일본풍 메이크업의 특징은 일본의 게이샤나 가부키의 분장용, 눈꺼풀 전체를 도색할 만큼 두껍게 그린 눈 새도우와 일본 인형을 연상케 하는 하얀 피부에 작고 오목조목한 눈, 코, 입의 연출과 검은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및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것이다.

주된 색상으로는 회고 창백한 피부표현을 위한 흰색과 붉은 색, 황금색과 검은색 등이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1. 피부표현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피부표현은 파운데이션과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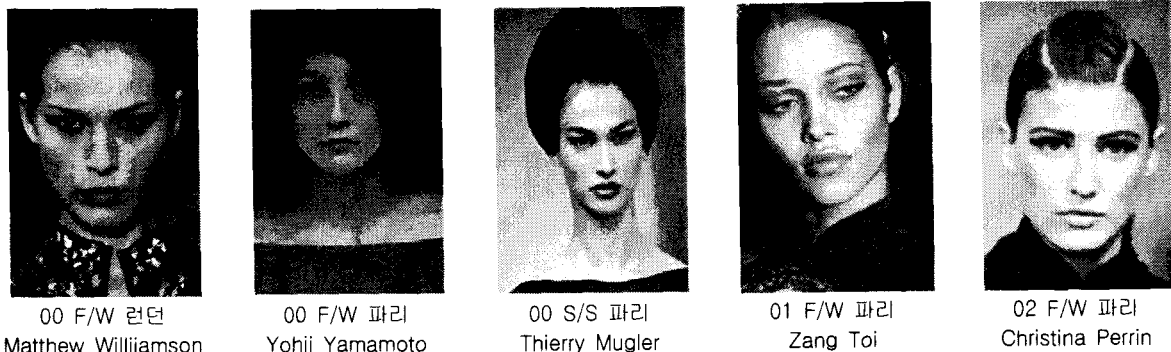
우더로 마무리한 일반적인 내추럴 피부와 파우더를 듬뿍 바른 매트한 피부,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표현을 위해 파우더 처리를 생략하거나 좀 더 쉬머(shimmer)한 표현을 위해 펄 파우더나 크림, 오일과 바셀린 등으로 처리된 피부로 크게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이미지의 피부표현을 이러한 질감 표현과 동양의 전통적인 흰색과 붉은 색의 피부표현으로 분류하였다.

1)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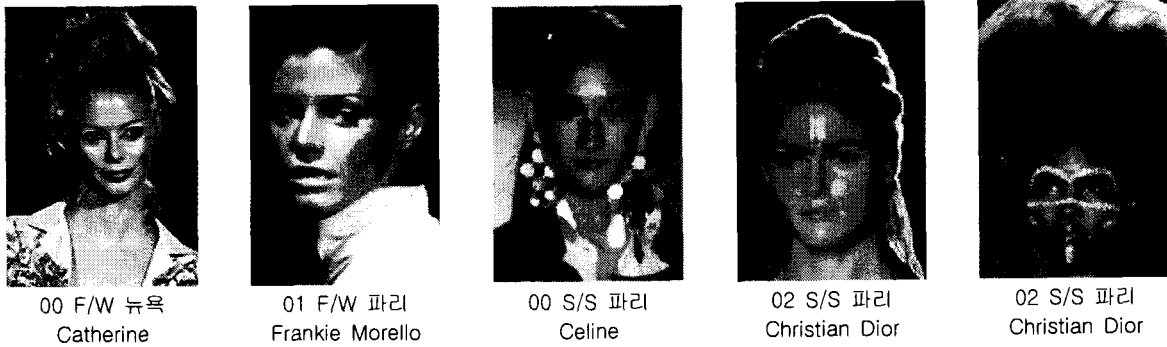
에스닉 경향에서 주로 사용되는 질 감적 피부표현으로는 회고 매트한 표현이다. 특히 2002, 2003 F/W 패션 컬렉션에서 안토니오 마스(Antonio Marras)는 흰 피부에 매트한 질감을 살려 창백한 피부표현을 하고 붉은색의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사용하였다(그림1).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나 페린(Christina Perrin) 역시 회고 매트한 누드 메이크업에 강한 아이라인으로 눈썹리만 강조된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 1).

2)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은 동방권이나 아프리카 등 기후가 온난한 지역의 민족성 특징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방법이다.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케서린(Catherine)은 밝고 빛나는 촉촉한 피부에 눈은 펄 새도로 화이트하게 표현한 후 아이라인을 강조하였고 치크를 붉게 물들인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안 디오르는 아프리카 머리장식부터 에스키모 레그 워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믹스 매치한 컬렉션을 보여 주었다. 그 중 인도와 아프리카족의 피부를 펄 크림이나 펄 파우더로 오일리(oily)한 피부로 만들었고 인도의 빈디를 응용하여 이마 중앙에 붉은 선과 진하고 강한 눈썹을 그려 놓았고 아프리카의 주술적인 페인팅을 글리터를 이용해 표현한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 2).



[그림 1]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표현



[그림 2]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

3) 분칠한 듯 흰 피부표현

색조를 이용한 피부표현으로 Fig. 3은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인 피부표현인 분칠한 듯 흰 피부표현이다. 주로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흰 피부에 검은 눈, 작고 요염한 붉은 입술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가부키 메이크업의 기본에 충실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2003 S/S 패션 컬렉션에서는 머리부터 몸 전체에까지 흰색의 유성페인트를 바르고 백분을 듬뿍 바

른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시도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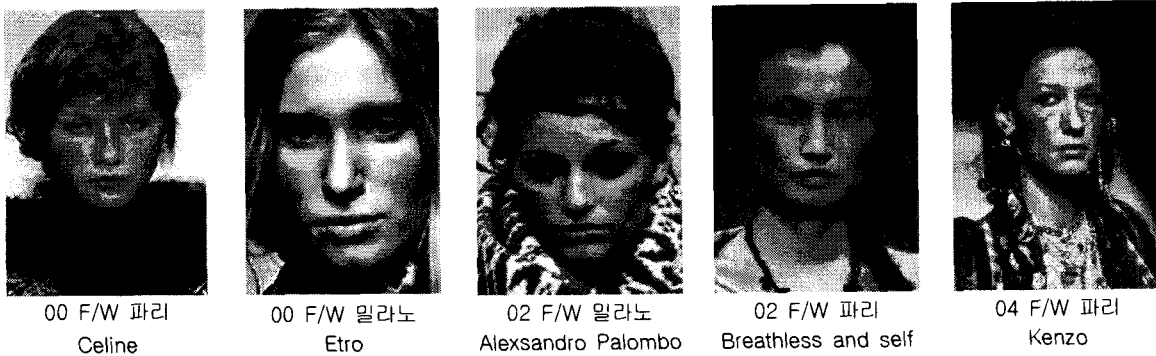
4) 황색, 붉은 색의 그을린 듯 한 피부표현

동양의 전통적인 흰 피부와 대비되는 색조인 황색, 붉은 색이 사용되었고, 안데스나 티베트의 고산지대나 몽골리언의 그을린 듯 한 피부와 얼룩진 피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의 글래머러스한 피부가 황색의 붉은 색채로 표현되어진다(그림 3, 4).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브래스리스 앤 셀프



[그림 3] 분칠한 듯 흰 피부표



[그림 4] 황색, 붉은 색의 피부표현

(Breathless and self)는 햇볕에 그을린 듯 황색의 얼룩진 피부로 몽골리안 룩을 표현하였다.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알렉산드로 팔롬보(Alessandro Palombo)와 2004 F/W 겐조(Kenzo)는 고산지대 여성의 그을려 얼룩진 피부에 붉은 치크로 강조된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톤 다운된 붉은 색채의 피부에 강한 아이라인과 립 라인을 강조한 멕시코 룩을 연출한 메이크업을 나타내었다. 2000 S/S 패션 컬렉션에서 안나수이(Anna Sui)와 타야마(Atsuro Tayama)는 내추럴한 붉은 색의 피부에 붉게 물든 치크, 글로시한 아이의 표현으로 글래머러스한 보헤미안 룩을 연출하였다(그림 3, 4).

2. 색조 화장(강조 메이크업)

에스닉 경향의 메이크업에서 전통적인 동양적 요소가 강조된 메이크업은 주요 색채가 블랙, 화이트, 레드, 핑크, 옐로우의 피부에 검은 눈썹과 아이라인, 붉은 입술로 컬렉션에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서 나타난 에스닉 경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색조를 이용하여 눈과 치크, 립 등 특징적인 부위별로 강조되어 표

현되었음을 보고 색조와 함께 강조된 부위별로 구분된다.

1) 강한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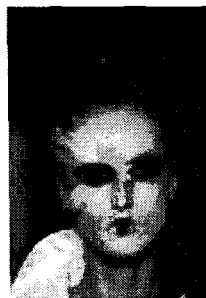
에스닉 이미지의 색조와 포인트 메이크업은 강한 아이라인이나 새도로 눈썹리가 강조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5). 주로 검은 색의 아이라인으로 길게 눈썹리를 강조하였고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금속 테이프를 오려 붙여 아이라인으로 표현하였고,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눈에 검은 크림 새도를 발라 스모키한 눈을 표현한 후 눈 주위에 깃털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예술적 감각을 표현한 메이크업을 추구하였다.

2)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광대뼈와 볼 주위를 강조한 치크 메이크업은 주로 옐로우, 핑크, 레드, 화이트, 블랙, 옐로우, 핑크, 옐로우의 황색과 그을린 피부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브라운 컬러, 파스텔 색조의 핑크계열이 사용되었고, 표현 부위는 관자놀이를 비롯하여 볼 안쪽과 아래쪽으로 약간 처진 듯 강조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Fig. 6). 이외에도 고산지대 여성의 표현은 볼 뿐만 아니라 콧등까지 붉게 얼룩져 표현되기도 하였다. 볼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므로



00 F/W 뉴욕
Catherine Malandrino



02 F/W 파리
John Galliano



03 F/W 런던
Boyd



02 F/W 파리
Alessandro de Benedetti



02 F/W 파리
Christian Dior

[그림 5]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00 F/W 파리
Celine



01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0 F/W 파리
John Galliano



00 F/W 파리
Yohji Yamamoto



04 F/W 파리
Kenzo

[그림 6]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로 눈과 입술은 누드 톤이나 투명한 핑크로 처리되었다.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에스키모족의 추위에 발갛게 상기된 볼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핑크의 패브릭 패치를 붙이기도 했다 (그림 6).

3) 눈과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중국의 경극에서 나타나는 붉은 색채로 눈과 치크를 연결하여 강조한 메이크업은 대부분 붉은 핑크계열이 사용되었고 그 중 오렌지와 옐로 컬러를 이용한 표현도 나타났다(그림 7). 예외적으로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그린의 펄 크림 색도로 눈과 치크를 연결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이마 중앙에 중국의 화전을 응용한 금속패치를 붙여서 그로테스크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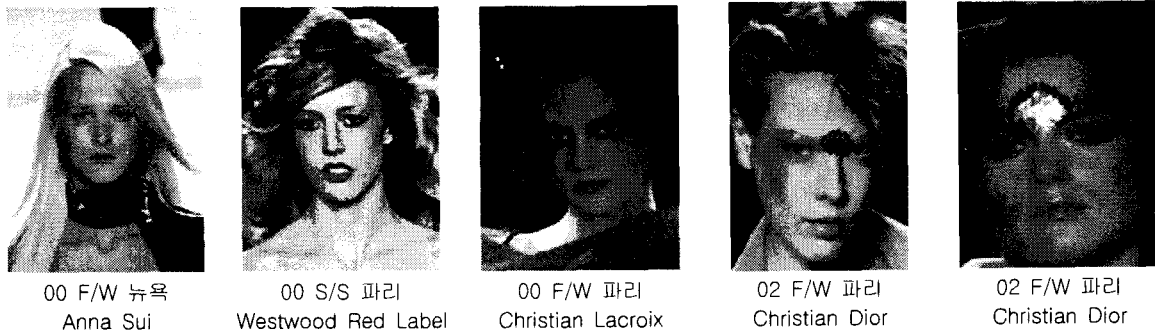
4)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모티브중 하나인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은 흰 피부, 검은 눈, 붉은 입술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아이와 립을 동시에 강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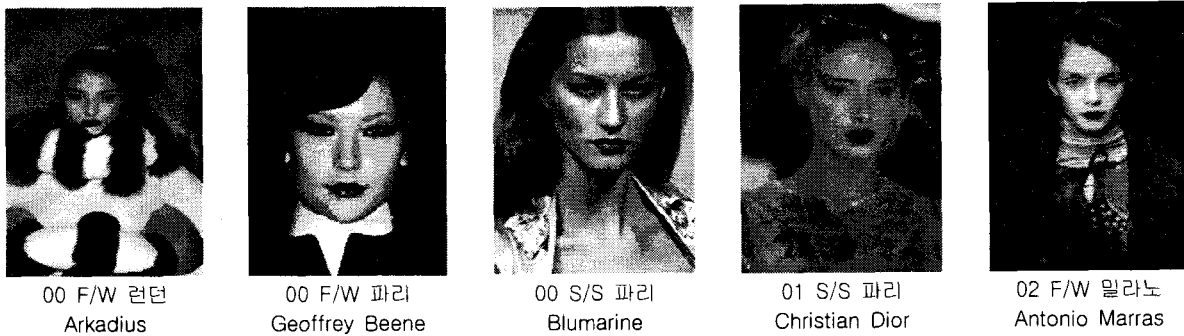
메이크업은 다음의 (그림 8)에서 제시하였다.

3. 변형 및 응용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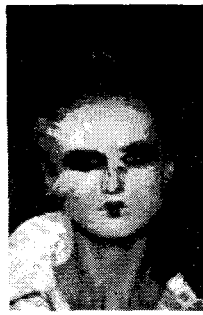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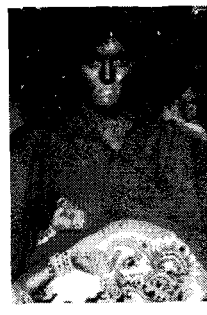
21세기에 이르러 미래 대안적인 패션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에스닉 메이크업도 미래지향적이고 복합적으로 절충된 스타일이 표현되고 있다. 동양적인 형태와 금속이나 또 다른 소재의 이질감을 교배시켜 테크노 적이고 환타지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그림 9)는 에스닉 메이크업의 전통성을 벗어난 변형이나 혼합 응용된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다. 2002 F/W 패션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금속 테이프를 붙인 아이라인, 유성크림을 이용한 스모키한 눈의 사방에 흰 깃털을 붙이고 붉은색의 입술로 페인팅 하였다. 2000 S/S 패션컬렉션에서 안나 수이와 발렌틴 유다실렌(Valentin Yudashlein)도 황금색의 글리터로 눈을 덮었다. 존 갈리아노는 얼굴 문신에 붉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에스닉 룩, 03 S/S 패션컬렉션에서는 얼굴과 몸 전체를 페인팅하기도 하였다.



[그림 7] 눈과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그림 8]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

00 S/S 뉴욕
Anna Sui02 F/W 파리
John Galliano01 S/S 파리
John Galliano03 S/S 파리
John Galliano03 F/W 파리
Christian Dior

[그림 9] 변형 및 응용메이크업

V. 결론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경향에 있어 그 제반요소인 메이크업이 토탈 패션의 한 요소로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제반 요소들 간의 상호 조화 속에서 패션 콘셉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이크업과 헤어 및 장신구에 이르기 까지 패션의 산업으로 등용하여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어필하고 예술적 감각과 자신의 패션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복식의 도구로서 부각시키고 있는 에스닉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컬렉션과 트렌드, 그리고 패션 메이크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낯설고 이국적인 멋을 추구하는 에스닉 패션은 아시아의 민속의상이나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의상 등,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스닉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은 다민족의 특성을 표현한 매트하면서 창백한 피부, 그을린 황색 피부, 글로시한 피부, 분칠한 듯 흰 피부 등이 피부표현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메이크업으로는 오리엔 탈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강한 아이라인, 붉게 강조된 치크, 붉은색의 작고 요염한 입술표현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패션에서 다양한 소재의 질감과 컬러의 기법변화와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 메이크업의 방법이 같이 변화하고 표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미래지향적 패션과 더불어 그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바람직하며, 이는 곧 메이크업의 소재와 질감, 컬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래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예측하여 좀 더 독창적이며 메이크업 기법 발달

이 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에스닉, 메이크업, 오리엔탈, 패션

참고 문헌

- 김종복 (2002) 패션키워드. 도서출판 시대, 서울
안병기 (2000)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학문사, 경기도
이은영 (1995) 패션마케팅. 교문사, 경기도
이호정 (1999) 패션디자인. 교학연구사, 서울
정삼호, 김영숙 (1996)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경기도
조규화 (1994) 복식사전. 경춘사, 서울
채금석 (1999) 패션디자인 실무. 교문사, 경기도
RFI. 패션산업정보. RFI, 2000
A. Jarnow, Jeannette, Guerreiro, Mirian & Judelle, Beatric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복식산업론. 김문숙 옮김(1990). 경춘사, 서울
Frank H. Mahnke.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최승희 외 역(1999). 국제, 서울
Gini Stephens Frings.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New Jersey :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Hannelore Eberle. 『Clothing Technology』. 금기숙 외 역 (2000). 의류과학과 패션. 교문사, 경기도
Horn & Gurel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옮김(1992). 까치, 서울
Jackson, C. 『Make-up Book』.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7
Jewell, D. L. 『Making Up by REX』. New York: Clarkson Potter Publish Company. 1986.
강병석 (1984). 토탈 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교희 (200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컬렉션을 중심으로

- 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 (2002).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컬렉션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니 (2002) 1990년대 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향신 (1993)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별 (1996)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태기, 김은정 (2002)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패션에 나타난 토탈패션(Total Fashion)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 Vol.52 No.5.
- 김경순 (2000)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Vol.6 No.3 25. 김수진, 한명숙(1999)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Vol.7 No.6.
- 이봉덕, 양숙희 (2001) 파코라반(Paco Rabanne)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 연구. Vol.5 No.3.
-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Vol.7 No.5.
- 조규화, 신경섭 (1998) 무대의상의 의미전달에 관한 연구-중국경극(Peking Opera)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6 No.4.
- 채금석, 변영희 (2004)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에 관한 연구-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 Vol.7 No.6.
- Vogue Korea. (2000. Jan.~2004. Nov.)
- Harper's Bazaar Korea. (2000. Jan.~2004. Nov.)
- [http:// www.style.com](http://www.style.com)
- (2007. 6. 28 접수; 2007. 10. 17 채택)